

학교생활

코로나19에도 봉사 활동을 해야 하나요?

자녀가 고2입니다. 작년엔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활동과 개인 봉사 활동을 합해 총 25시간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1년에 20시간이 권장 시간이라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 활동을 다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직 봉사 활동을 1시간도 채우지 못했어요. 등교 수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올해도 1년에 20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봉사 활동 권장 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임진아(49·서울 송파구 잠실동)

A

서울은 올해 봉사 권장 시간 없어, 교육청마다 봉사 권장 시간 달라

올해는 교육청별로 봉사 활동 연간 권장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020년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을 중등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고등은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각각 5시간씩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6월에 2020학년에 한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을 한시적으로 없애겠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봉사 활동을 못했더라도 봉사 시간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은 고입에서도 2020학년 봉사 시간을 성적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봉사 활동을 계획해 운영할 수 있고, 학교 봉사 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사 활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연간 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했다가 2학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권장 시간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봉사 시간을 3년간 60시간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40시간으로 축소했습니다.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은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기에 자신이 속한 교육청이나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MORE TIP

교육청별로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을 축소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봉사 활동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개별 봉사 활동을 해야 하거나, 하기를 원한다면 비대면 봉사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점차 도서 제작을 위한 워드 입력 및 교정 작업, 선פל 달기, 번역 봉사 활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에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봉사 활동이 탑재되고 있으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입시

A 대학마다 면접 순서를 지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임의로 순서를 배정한 가번호로 진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학에 따라 면접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대 최미정 책임입학사정관은 “고려대의 경우 가번호와 면접 순서 모두 면접 당일 결정된다. 학생들이 도착한 순서 대로 본인의 바코드를 찍으면 가번호가 부여되고 모집 단위와 전형별로 나눠 조별로 1명씩 배정된다. 조별로 1명씩 배정이 끝나면 다시 첫 조부터 2번째 인원을 배정하는 식이다. 조별 인원 배정이 모두 끝나면 같은 조 내에서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돌려 무작위로 면접 순서를 정한다. 입학사정관도 고사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몇 명을 평가하게 될지, 누가 언제 면접을 치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제대 입학처 김세홍 담당자는 “작년의 경우 접수순으로 면접이 진행됐고 면접 일정이 중복될 경우 변경 신청도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전형이 간소화되면서 의예과의 경우 면접일이 3일에서 1일로 줄어 면접 일정 조정이 힘들다. 가능하다고 해도 면접 문제가 공개된다는 점 때문에 오후 면접 대상자들이 입실하고 나서 오전 학생들이 퇴실하므로 같은 날 2곳의 면접 응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대학과 면접이 중복될 경우 면접일이 다른 전형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면접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내년에 입시를 치르는 고2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선배 학부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접수 번호는 1번이었는데 면접은 뒤에서 4번째로 봤다는 이야기도 있고, 접수 순서대로 면접을 치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대학의 면접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은영(49·울산 남구 옥동)

MORE TIP

면접 순서 지정 방식을 알려주거나 면접 일정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 송덕고 장광재 교사는 “일부 지방 사립대의 경우 면접일이 겹치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면접일이 변경되거나 온라인 면접이 도입되는 등 변화가 많으므로 원서 접수 전 반드시 최종 확정된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입학처로 문의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